10.15686/fkl.2024..61.82

임신중지 서사의 감정 각본 다각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의 한국 소설을 중심으로

박다솜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강사

목차

1 법적 금지와 현실의 묵인 사이, 임신중지 서사의 부재
2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하명희의 「십일월이 오면」과 이현석의 「다른 세계에서도」
3 여성의 육체에 대한 여성 자신의 소유권-이서수의 「엉킨 소매」
4 사회적 망상과 고마운 유산(流産)-박서련의 「그 소설」
5 결론

국문초록

2019년 이전의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는 법적으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형법이 규정하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지만 누구나 어렵지 않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임신중지가 충분히 사유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임신중지 담론의 빈곤은 문학장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임신중지 서사 및 임신중지 서사에 관한 본격적 연구가 협소한 실정이다.

그런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한국 문학장 안에서 새로운 임신중지 서사가 점차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에 본고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발표된 이현석의 「다른 세계에서도」(2019), 하명희의 「십일월이 오면」(2021), 박서련의 「그 소설」(2021), 이서수의 「엉킨 소매」(2022)를 중심으로 최근 한국 소설의 임신중지 재현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서사가 '임신중지 감정 각본'에 새겨 넣는 균열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감정 각본이란 한 사회의 '상식적인 감정'을 규정하는 일관된 내러티브로, 우리 사회의 임신중지 감정 각본에는 슬픔·죄책감·수치심 등의 부정적 감정만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에리카 밀러가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임신중지는 안도·감사·희망 등의 긍정적 감정을 야기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임신중지 감정 각본이 가진 편협함은 임신중지와 행복을 함께 사유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일축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임신중지를 다루는 네 편의 근작과 에리카 밀러의 논의를 함께 살핌으로써 최근 우리 소설들이 보여주는 임신중지 서사의 감정 각본 다각화 시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국문핵심어: 낙태, 임신중지, 에리카 밀러, 감정 각본, 이현석, 「다른 세계에서도」, 하명희, 「십일월이 오면」, 박서련, 「그 소설」, 이서수, 「엉킨 소매」

1 법적 금지와 현실의 묵인 사이, 임신중지[1] 서사의 부재

한국 사회가 법으로 금지하는 것들 중에는 절도, 강간, 살인처럼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는 것들이 있고, 이와 달리 성매매처럼 법으로 금지하긴 하나 현실에서는 상당 정도 묵인하는 것들도 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는 성매매가 그렇듯 법적 금지와 현실의 묵인 사이에 놓여 있었다.[2] 그런데 2010년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가 불법 임신중지 시술을 한 산부인과들을 고발[3]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관한 헌법 소원에 대해 2012년 8월 23일에는 합헌 판결을, 2019년 4월 11일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19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입법자가 해당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기간(2020년 12월 31일까지)이 주어졌는데, 해당 기간이 종료되도록 아무런 대체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로 한국에서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법적 조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4]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는 암묵적 허용의 범주 안에 있었기에 암암리에 공공연하게 행해져 왔다. 낙태죄가 법적 효력을 갖던 시기인 2006년에 양현아는 임신중지의 만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임신중지 옹호 담론이 부족하다며 이런 "찬낙태 담론의 부재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 여성들은 이미 낙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5]고 말

---

1 본 논문에서는 '임신중지'라는 단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법적인 의미에서 '낙태죄'를 지칭하는 경우에만 '낙태'라고 쓴다.

2 법적 금지와 현실적 묵인 사이에 위치한 임신중지와 성매매 둘 모두 여성의 육체에 대한 자기 통제권과 연관된다는 점도 흥미롭다. 여성의 육체는 상징적으로 국가의 통제 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읽혀서다.

3 김양중 기자, 「'불법 낙태 처벌' 논란 점화」, 『한겨레』, 2010.02.0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2697.html

4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관해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서발간팀 편집,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2021 참고.

5 양현아, 「여성의 임신종결권리의 필요성과 그 함의」, 『생명윤리』 7권 1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06, 17쪽.

한다. 우리가 그간 임신중지 담론에 무관심했던 이유는 누구나 비교적 어렵지 않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런 진단은 그야말로 역설적이다. 형법이 규정하는 범죄 행위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아무런 처벌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임신중지를 적극적으로 사유하지 않는 상황을 낳았다. 법적 금지와 현실의 묵인 사이에서 일종의 무無담론 지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담론의 층위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 역시 이 아이러니한 대상을 사유함에 있어 태만했던 측면이 있다. 2010년 김미경은 "문학연구에서 낙태를 핵심문제로 주제화 한 논문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낙태문제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학문적으로 담론화하는 데는 여전히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회적 현실"[6]이라고 꼬집고 있다. 임신중지를 다루는 연구 환경의 척박함을 지적하는 이런 논의는 11년 후인 2021년에도 반복된다. 페미니스트 정치 공간과 여성 문학을 구분하며 논의를 펼쳐 나가는 양혜원은 "2010년대의 낙태죄 폐지 운동에서는 낙태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논의는 있으나 그 경험을 다루는 동시대 여성 문학의 역할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박완서와 공지영의 과거 글이 2010년대에 소환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7]고 언급한다. 이처럼 한국 문학장 안에는 임신중지를 다루는 작품도, 임신중지 서사에 대한 연구도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그간의 공통된 견해다.

문학장 안에서 드러나는 임신중지 서사에 대한 무관심은 앞선 연구자들이 거듭 지적하는 것처럼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 언어 자체의 부재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양혜원이 잘 정리하고 있는 바[8], 김미경, 양현아, 백영경 등 임신중

6 김미경,「낙태 담론과 페미니즘 욕망의 문학적 형상화-아이히어의『거울이야기』와 박완서의『그 가을의 사흘동안』을 중심으로」,『헤세연구』23권, 한국헤세학회, 2010, 185쪽.

7 양혜원,「여성 경험의 서사와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 박완서와 공지영의 낙태 서사를 중심으로」,『한국학』44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317쪽.

8 "김미경은 낙태 문제에서 여성 주체의 서사가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양현아는 여성에게 낙태의 경험은 있지만, 그것을 재현할 상징적 질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짚어내고, "백영경은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낙태 논쟁이 법과 정책의 언어로 점철되면서 여성의 경험은 오히려 묻히는 현상을 지적한다." 양혜원, 위의 글, 319-320쪽.

지 문제를 사유하는 연구자들은 하나같이 임신중지를 다루는 여성적 언어의 부재를 문제 삼는다. '임신중지 담론'을 첫째, 찬/반을 다투는 현실의 논리적 분쟁과 둘째, 실제의 경험담이나 문학적 재현을 포괄하는 서사의 층위로 구분할 때, '여성적 언어의 부재'란 후자의 빈곤함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간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임신중지 경험에 대한 개인적 발화도, 임신중지 서사의 문학적 창안 및 연구도 부진했던 것이다.

에리카 밀러의 '감정 각본'에 대한 참고는 그 까닭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에리카 밀러는 임신중지 서사가 특정한 '감정 각본'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 그 각본에 따르면 임신중지는 여성이 즉각 통제할 수 없던 외부 상황에 맞닥뜨려 몹시 어렵게 선택한 일이며, 여성은 자기가 겪은 임신중지를 정당화해야 한다. 그래서 태아에게 무엇이 최선이었는지를 말하고, 임신중지 이후 태아를 잃은 슬픔을 애도하며, 수치나 죄책감 때문에 임신중지를 비밀에 부친다.[9]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에 대해 공적으로 진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윤리성에 대한 무언의 검열을 피할 수 없다. 에리카 밀러가 제시하는 '감정 각본'은 목소리를 내려는 여성의 의식을 장악하는 무형의 검열을 실체화한다. 감정 각본은 "여성이 어떻게 임신중지에 다가가고 이를 경험해야 하느냐에 관한 문화적 기대"가 형성한 내러티브다. "감정은 임신중지를 단속한다. '임신중지 금지'를 대놓고 말하지 않되, 임신중지의 경험과 그 결과라는 각본에 따라 공유된 의미에 반反임신중지 정서를 심는다. 이를테면 '여성이 임신중지 뒤에 깊은 슬픔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임신중지는 본래 애통함과 수치를 야기하는 절차로서 자리매김한다."[10] 임신중지에 대한 '상식적인 감정'이 지극히 정치적으로 서사화 되어 왔다는 것이 그의 요지다. 수치심이나 슬픔, 죄책감, 우울의 감정 없이 임신중지 경험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적 공

9 에리카 밀러, 이민경 역, 『임신중지: 재생산을 둘러싼 감정의 정치사』, 아르테, 2019, 9쪽.
10 위의 책, 9-10쪽.

격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임신중지에 관한 말하기는 통제되어 왔다.[11]

그런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한국 문학장 안에서 새로운 임신중지 서사가 점차 발견되기 시작한다.[12] 이에 본고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발표된 이현석의 「다른 세계에서도」(2019), 하명희의 「십일월이 오면」(2021), 박서련의 「그 소설」(2021), 이서수의 「엉킨 소매」(2022)를 중심으로 최근 한국 소설의 임신중지 재현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최근의 소설들에서는 임신중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포착되는데, 이때 관점의 변동은 '낙태'와 '임신중지'라는 단어 사이의 간극을 직접 반영한다. 서사의 주안점이 '태아'에서 '(여성의) 임신'으로 옮겨간 것이다. 본 논문은 임신중지를 다루는 네 편의 근작과 에리카 밀러의 논의를 함께 살핌으로써 최근 우리 소설들이 보여주는 임신중지 서사의 감정 각본 다각화 시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하명희의 「십일월이 오면」과 이현석의 「다른 세계에서도」

서구에서 임신중지에 관한 논쟁은 프로라이프(pro-life) 대 프로초이스(pro-choice), 즉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구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생명 존중 사상이 낙태죄 찬반 논쟁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서구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태아의 생명권에 주목하는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2012년 헌법재판

11 한국여성민우회가 발간한 『있잖아… 나, 낙태했어』(다른, 2013)는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인터뷰를 수록한 책이다. 거기서 한 인터뷰이는 임신중지 이후에 "특별히 몸이 아픈 데도 없었고 심리적으로도 뭔가 우울하거나 내가 죄의식이 생기거나 그런 마음도 전혀 안 들었"다며 자신은 "그게 더 걱정이고 이상했"(103쪽)다고 말한다. 이처럼 슬픔, 죄책감, 우울이 임신중지에 따르는 '상식적인 감정'으로 간주될 때, 그런 감정들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12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작품들 외에도 수신지의 만화 『곤』 1·2(귤프레스, 2019·2020), 황모과의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문학과지성사, 2022) 뿐만 아니라 "#낙태죄_전면폐지_2000자_엽편_릴레이"라는 해시태그로 SNS상에서 진행된 글쓰기 역시 임신중지 서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소의 낙태죄 합헌결정을 기점으로 해서다.[13]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14]라는 헌법재판소의 선언은 에리카 밀러가 지적하는 ‘상식적인’ 임신중지 감정 각본의 논리적 전제처럼 기능한다. 이런 관점 속에서라면 태아는 존재 자체로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중지란 법적으로는 처벌받아야 하는 죄이며, 주체에게는 수치스럽거나 슬픈 것, 죄책감을 야기하는 것이다.

임신중지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은 한국 문학사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미경은 여성적 말하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청하면서도 여성은 임신중지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한다. “아기가 죽으면 그 생명을 담지했던 여성도 죽는 것이다. 살아도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의 기로에 선 여성들에게 법과 윤리의 심판으로 돌을 던지기 전에 그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게 해야 한다. 낙태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그들은 삶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15] 이렇게 말할 때 임신중지는 여성 주체의 죽음과 맞닿아 있다. 이런 논리 안에서라면 죽음(물론 여기서 죽음은 상징적 의미를 띄고 있다)에 대한 고려 없이 임신중지를 말하는 여성은 예외적 존재로 규정될 위험에 노출된다.

하명희의 「십일월이 오면」(2021)은 감정 각본의 중요성에 대한 단적인 예시가 되어준다. 엄마의 죽음을 다루며 전개되는 이 소설에서 화자의 엄마는 과거 사채업자들에게 강간을 당해 임신을 하고 임신중지를 한 적이 있다. 엄마는 죽기 전 기억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이 임신중지 경험을 끊임없이 되새기는데,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과 임신중지라는 일련의 과정은 “막내만은, 아무 죄도 없는 한 생명만은”[16]이라는 표현으로 압축되고 만다. 이런 방식으로 소설은 우

13 이은진, 「낙태죄의 의미 구성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17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7, 3장과 28-29쪽 참고. 이은진에 의하면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는 “‘인구정책’, ‘국가 발전’, ‘사회질서’ 등의 키워드로 표현되는 공적인 차원”(16쪽)의 필요에 의해서 그 의미가 구성되어 왔다.

14 헌법재판소 2012.8.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15 김미경, 앞의 글, 199쪽.

16 “어쩌면 엄마는 그 아이, 막둥이만 남기고 다른 것은 다 잊어야 살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생의

리가 임신중지에 대한 '상식적인' 감정 각본을 고집할 때 어떤 서사가 생성되는지를 보여준다. 임신중지를 죄의식이나 슬픔이라는 감정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 성폭행 피해자가 임신중지로 인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것이 결국 임신중지에 대한 더 많은 찬/반 논의뿐 아니라 보다 풍부한 임신중지 서사를, 한층 다채로운 임신중지 감정 각본을 요청하는 이유일 것이다.

한편 소설이 노정하는 이런 관점을, 비구니인 이모(이모 역시 성폭행 피해자다)가 상징하는 불교적 색채를 근거로 서구 가톨릭의 생명 존중 사상의 한국적·불교적 변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있어 문제적인데, 소설은 이모와 엄마의 성폭행 피해를 직접 지칭하는 대신 시종 '아픈 일'로 뭉뚱그린다는 점이다. 피해 사실에 대한 언어적 은폐는 가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소설에서 이모는 "어릴 때 동네 아저씨한테 아픈 일을 당했"는데 언니(화자의 엄마)를 제외한 가족들 모두 이모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쉬쉬하고 끝내 "알면서도 모른 척"(「십일월이 오면」, 22-23)한다. 게다가 결혼 이후 성폭행 피해자가 된 화자의 엄마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아빠한테 빌"(「십일월이 오면」, 26)기까지 한다. 여성에게 강요되는 가부장제적 순결 개념은 여성 주체의 성폭행 피해를 가정 안에서마저 은폐·외면되도록 만들며, 끝내 피해자인 여성(엄마)이 파트너 남성(아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강간으로 생긴 태아에 대해 '막둥이'라고 칭하는 방식으로 새 생명에 대한 무맥락적이고 무조건적인 환대를 보여주는 「십일월이 오면」은 태아의 생명권을 극단적으로 숭배하는 임신중지 서사로 이해될 수 있다. 원한 적 없는 임신과 임신중지를 한 여성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그것을 내내 반추하며 애달파하는 이야기는 '본능으로서의 모성애'와 '태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고귀한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작동한다. "어쩌면 엄마는 그 아이, 막둥이만 남기고 다른 것은 다 잊어야 살 수 있었던 건 아닐까."(「십일월이 오면」, 33)라는 문장이 태아의 생명권만을 거룩하게 여기는 동안, 사채업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돈으로 남편

막바지에 요양병원에서 그 느린 시간 속으로 들어가 생을 지우고, 막내만은, 아무 죄도 없는 한 생명만은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것이 아픔이었어도 오로지 엄마만은 그것을 기억한다고, 잊을 수 없다고 알려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명희, 「십일월이 오면」, 『여덟 편의 안부 인사』, 강, 2021, 33쪽. 이후로 이 책에서 인용 시 작품명과 쪽수만 표기한다.)

의 병원비를 댔던 엄마의 신산한 삶도 함께 잊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이현석의 「다른 세계에서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옹호하는 입장에 가까워 보인다. 「다른 세계에서도」는 한국 문학의 임신중지 서사에서 일종의 전환점으로 기능하는 작품으로, 작가가 밝혔듯 에리카 밀러의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17]되어 있다. 소설의 화자인 정지수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과거 친하게 지냈던 시민운동 활동가 희진 언니의 권유로 한 시사지에 재생산권 관련 칼럼을 연재하게 된다. "옳다고 여기는 거랑 말해져야 하는 게 늘 같을 수는 없더라"[18]면서, 낙태죄 폐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신중지 감정 각본을 수용하고 답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희진 언니와 달리 지수는 "바로 지금", "지금 당장"(「다른 세계에서도」, 62)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설은 지수의 칼럼에 들어갈 문장의 형식을 빌려 주제의식을 직접적으로 발화한다.

> "……임신중지를 겪은 모든 여성이 동일하게 경험하리라 가정되는 비감은 그들에게 생명을 폐기시켰다는 자기 인식을 갖게 해 스스로를 비윤리적인 존재로 획일화하도록 만든다." (…) "……임신중지가 언제나 예외 없이 한 여성의 절실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는 고정관념은 그것이 항상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하게 취해져야만 하는 조치처럼 여겨지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나는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이러한 논리 끝에 임신중지가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로만 가정된다면 우리의 주체성은 지워질 것이며, 타인의 선의에 의해 구조받는 나약한 존재로만 재현될지도 모른다."(「다른 세계에서도」, 62-63)

어떤 임신중지는 그리 슬프거나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나아가 "절박한

17 이현석은 『2020 제11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의 작가노트인 「각주」에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논의들 중 상당 부분은 에리카 밀러가 쓴 『임신중지-재생산을 둘러싼 감정의 정치사』(이민경 역, 아르테, 2019)에서 비롯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이현석, 「각주」, 『2020 제11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20, 204쪽.)

18 이현석, 「다른 세계에서도」, 『다른 세계에서도』, 자음과모음, 2021, 57쪽. 이현석의 「다른 세계에서도」는 모두 이 책에서 인용했다. 이후로는 작품명과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상황에서 절박하게 취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수의 주장은 그 자체로 임신중지 감정 각본에 깊은 균열을 새겨 넣는다. 절박하지 않은 임신중지에 대한 상상은 슬픔·우울과 결부되지 않은 임신중지 감정 각본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비감이나 고통과 얼마간 동떨어진 곳에서 임신중지 경험이 이야기되고 그런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때, 우리는 "왜 임신중지를 여성에게 긍정적이고 이로운 경험으로 나타내는 감정(예를 들어 안도·행복감·희망·고마움)은 보통 생략되고 배제되고 부인되는지" 물을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임신중지에 관한 긍정적인 서사"[19]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수의 주장은 그가 동생인 해수의 임신 소식을 듣고 동생의 미래를 위해 남몰래 임신중지를 생각해보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서수, 박서련의 작품에서와 달리 「다른 세계에서도」에서 해수의 남자친구는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묘사된다. 정형외과 전공의에다 "생긴 것도 괜찮고, (…) 헌신적이고, (…) 성실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잘됐다며 빨리 결혼이나 시키자고 되레 그 소식을 반기는 아버지"(「다른 세계에서도」, 40-41)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처럼 해수의 임신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해 포용 가능한 범주 안에 놓여 있다.[20] 그러므로 "여동생 해수가 임신을 중지하길 바라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잘 공감이 안 된다는 것"이 "이 소설이 가장 쉽게 비난받을 수 있는 지점"[21]일 수 있다는 평은 어떤 의미에서 소설의 핵심을 꿰뚫는다.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이유'의 목록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항목을 더하는 것, 즉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범주를 그만큼 넓혀내는 일을 소설은 하고자 한다. 작품 안에서 임신중지가 오롯이 해수의 직업적 미래를 위해서 고려되는 까닭이다. 당사자인 해수가 아니라 언니와 어머니에 의해서 고려되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

19 에리카 밀러, 앞의 책, 10-11쪽.

20 결혼 적령기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혼전 임신은 응큼하지만 귀여운 에피소드쯤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그들이 무사히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족을 꾸렸을 경우에만.

21 물론 해당 내용 뒤에는 "그러나 임신중지의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되는 인물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않다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소설은 끝까지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는 문장이 이어진다. (강지희 심사평, 『2020 제 11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20, 285쪽.)

정작 당사자인 해수는 “내는 그냥 행복하고 싶더라.”(「다른 세계에서도」, 69)라고 말한다. 해수가 바라는 “그냥 행복”이란 기존 가치관 속에서의 행복, 즉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주장하는 행복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행복”이라는 것이 이미 사회적 구성물임을 소설의 핵심 소재인 ‘낙태죄’ 자체가 드러내고 있어 흥미롭다. 낙태죄에 합헌 판결을 내리는 사회와 위헌 판결을 내리는 사회, 각각의 경우에서 ‘행복’은 분명 다르게 상상될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해수가 주장하는 “그냥 행복”이 담지하는 정치성은 꽤나 문제적이다.[22]

한편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해수의 아이를 ‘당신’이라 칭하며 서사를 펼쳐가던 소설은 그 마지막에서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리라는 사실”과 동시에 “당신이 없는 그곳에서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다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 다른 세계에서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분명 굳건할 것임을”(「다른 세계에서도」, 70) 확신하며 끝난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임신중지의 실행 여부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굳게 고백하는 마무리는,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염려하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문학적 반박처럼 읽힌다.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구도 속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옹호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임신중지 감정 각본을 직설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이것이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 결코 아님을 소설은 못 박아두는 것이다.

3 여성의 육체에 대한 여성 자신의 소유권 – 이서수의 「엉킨 소매」

「다른 세계에서도」에서는 임신의 당사자인 해수가 아니라 그녀의 언니와 엄마에 의해 임신중지가 상상되었었다면, 이서수의 「엉킨 소매」와 박서련의 「그 소설」은 임신중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23]한 여성 화자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이른바

22 관련하여 사라 아메드는 ‘행복’ 담론이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탐구한 바 있다. 행복의 약속은 우리가 특정한 양태의 삶을 욕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복**이라는 말은 일을 한다.”(사라 아메드, 성정혜·이경란 역, 『행복의 약속』, 후마니타스, 2021, 361쪽.)

23 「그 소설」의 화자는 임신중지가 아니라 계류 유산을 경험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임신중지를 경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임신중지를 경

당사자성을 띤 소설이다. 「엉킨 소매」는 실제로 임신중지를 결심하고 또 겪는 과정에서 인물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려낸다.

그런데 「엉킨 소매」는 화자의 당사자성 문제뿐만 아니라 태아의 존재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세계에서도」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어쨌든 「다른 세계에서도」가 해수의 아이를 편지의 수신자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소설의 배면에 아이의 존재를 적극 배치해두었던 것과 달리 「엉킨 소매」는 태아의 존재를 축소하고 있다. 소설의 화자는 임신을 알게 된 이후 배아[24]를 '6주'라고 부르며 '다, 나, 까' 말투를 쓰는 방식으로 의식적으로 거리를 둔다.[25]

> 나는 6주에게 말할 땐 다, 나, 까 말투를 썼다.
> 너는 곧 죽을 텐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해선 안 됩니다.
> 배고픕니까.
> 나는 배고픔을 느끼는데, 누군가 올린 게시글처럼 니가 느끼는 배고픔인지도 모르겠단 생각은 안 합니다. 나는 6주 너를 갖기 전에도 자주 배가 고팠던 사람입니다.[26]

물론 위 인용문이 보여주는 배아와의 의식적 거리두기는 임신중지에 따르는 모

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4 소설 안에서 화자는 임신한 지 7주가 넘지 않았으므로 「엉킨 소매」를 분석할 때는 '태아'가 아니라 '배아'라고 쓰기로 한다.

25 「그 소설」의 화자 역시 '이것'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아니 에르노도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다룬 소설 『사건』에서 이렇게 쓴다. "내 상황을 생각하며, '그것'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다. '아기를 기다린다.'라든지, '아기를 밴'이라든지, '기괴한'과 비슷한 철자로 시작되는 '임신'이라는 표현 중 그 무엇도 사용하지 않았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를 인정하는 느낌이 들었다. 사라지게 하리라 결심한 것을 굳이 명명할 필요는 없었다. 수첩에는 '이것', '이런 것'이라고 적었고, 단 한 번 '임신'이라는 표현을 썼다."(아니 에르노, 윤석헌 역, 『사건』, 민음사, 2019, 21-22쪽.)

26 이서수, 「엉킨 소매」, 『젊은 근희의 행진』, 은행나무, 2023, 56쪽. 이서수의 「엉킨 소매」는 모두 이 책에서 인용했다. 이후로는 작품명과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종의 죄책감을 드러내는 한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엉킨 소매」는 죄책감에 취해 마냥 비극으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임신중지를 대하는 새로운 감정 각본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태아의 존재가 다소 뒤로 물러난 지점에서 죄책감은 한층 옅어진 형태로 재현된다. '나'는 임신중지를 앞두고 "생명을 죽인다는 죄책감,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나도 그걸 부인하진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죄책감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죄책감을 극복하든 못하든 계속 잘 살아갈 것이다."(「엉킨 소매」, 57)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소설은 죄책감에 마냥 매몰되지 않는 한편, 화자의 임신을 임대업에 비유한다. 부동산에서 일하는 친구 해정은 '나'의 임신중지에 대해 "방의 주인은 나이기에 내 결정에 달린 문제"(「엉킨 소매」, 52)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소설은 태아와 여성의 권리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 '여성의 육체를 여성 자신이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로 논의의 구도를 전환한다. 기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립시키는 이분법적 구도는 여러 방면에서 비판 받아왔다.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 규정의 역사는 '태아의 생명권'을 그리 중시한 적 없으며, 태아의 생명권을 빌미로 여성의 몸(특히 출산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전략이었다는 사실이 거듭 지적되어 왔다.[27]

소설은 임신중지가 여성 주체의 선택·결정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문장들[28]을 반복함으로써 여성의 육체에 대한 여성 자신의 소유권을 역설한다.[29] 빈집을 불

27 더불어 임신중지 문제를 태아와 여성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로 의미화하는 것은 남성과 사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기도 하다.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 구도에 대해 비판하는 연구들로는 양현아,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한국여성학』 26권 4호, 한국여성학회, 2010; 박종주, 「'낙태'는 죄였던 적이 없다」, 『여성이론』 37호, 여이연, 2017; 이은진, 앞의 글; 그리고 성과재생산포럼에서 기획한 책 『배틀그라운드』(후마니타스, 2018)는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저자들의 글을 모아 실었다.

28 "나는 오로지 나의 선택으로만 괴로워할 것이고, 때로는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을 건데."(「엉킨 소매」, 52), "내가 나의 온전한 결정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될 수 있게 나를 좀 내버려두면 안 될까?"(「엉킨 소매」, 57)

29 본 논문의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흐름은 임신중지권리 담론의 경과와 궤를 같이한다.

법 점유하다가 집주인에게 들켜 쫓겨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집은 재산으로 인정되고 그래서 소유권이 오롯이 인정되는데, 여성의 몸은 "누구나 간섭할 수 있는 공공자산"(「엉킨 소매」, 81)으로 여겨진다고 말하는 대목 또한 같은 목적에 복무한다. 여성의 몸이 여성의 소유일 때, 임신중지는 누군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일이 아니게 된다. 그러니 임신중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다투고, 헌법이 '낙태의 죄'를 규정하는 이 모든 사태야말로 여성의 몸이 여성의 소유가 아님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엉킨 소매」는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의 소유권 강변'을 대타항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소설이 여성의 몸을 집에 비유하는 과정에서 '나'가 불법 점유했던 집의 복도 벽이 불룩하게 부풀어 있다는 설정이 등장해 문제적이다. "가운데 부분이 곡선을 그리며 앞으로 크게 튀어나와 있"는, "안에서 뭔가가 벽을 밀고 나올 것 같은 모양새"(「엉킨 소매」, 66)는 그 자체로 임신한 배 형상을 상징한다. 이는 물론 임신을 임대업에 빗대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지만, 화자의 두려움과 잔존하는 죄책감을 현시하는 이미지이기도 하다. 임신한 '나'의 몸 상태와 벽의 불룩한 정도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임신 6주에는 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불룩한 벽의 이미지에는 과잉된 공포가 묻어 있다.[30] 임신이란 때로 너무도 쉽게 '불룩한 배'만으로 대표되고 만다.

「엉킨 소매」는 임신중지 당사자인 화자의 내면에 침잠해 들어가 임신중지에 따르는 죄책감을 묘사하는 일에 집중하는 대신, 태아의 문제는 얼마간 뒤로 물러나고 서사의 중심이 여성 주체의 이야기(소설은 '나'와 친구 해정, 주영 씨와의 관계에 집중한다.)로 옮겨갔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설

이혜정과 송다영은 우리나라의 임신중지권리 담론이 "생명권 대 선택권이라는 담론구조에 머물지 않고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도구화와 통제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로 나아갔다"고 말한다. (이혜정·송다영, 「임신중지권리 담론 분석 — 대항담론 형성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21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21, 217쪽.)

30 이는 이현석의 「다른 세계에서도」에서 임신중지 시술을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자신이 시술한 아기의 초음파 사진이 또렷하게 떠올라 괴로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을 떠올리게 한다. 소설의 화자는 시술한 산모가 임신 8주차였으니 실제 초음파상에서는 그저 덩어리처럼 보였으리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은 '나'와 해정, 주영 씨의 임신중지에 대한 각기 다른 견해의 충돌을 통해 서사를 전개하는데, 마지막 순간 세 사람은 서로의 생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엉켜 매트리스를 탄다. 이른바 '연대의 순간'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이 장면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내 다른, 그리하여 언제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엉킨 소매」, 79)되는 개별자로 복귀할 수 있는 연대의 불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연대의 불가능성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31]다. 오직 연대의 불가능성을 내포한 채로만 말이다.

4 사회적 망상과 고마운 유산(流産)-박서련의 「그 소설」

이서수의 「엉킨 소매」가 여성의 육체에 대한 여성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박서련의 「그 소설」은 「엉킨 소매」가 대타항으로 삼고 있는 것, 즉 여성의 육체에 대한 사회의 소유권 행사를 형상화한다. 박서련의 단편 「그 소설」은 많은 좋은 소설이 그렇듯 여러 갈래로 읽힐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근래 논란이 되었던 '문학 작품과 아웃팅 문제'를 곱씹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훔쳐 여러 문학상을 휩쓸었던 '소설 「뿌리」 도용 사건'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또 작가와 독자와 작품의 관계에 대한 지극한 메타소설로 읽을 수도 있다.[32] 그런데 메타소설의 형식을 취하는 「그 소설」이 임신중지를 소재로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작중 등장하는 임신중지 소설 「내 얘기」에 대한 소설인 「그 소설」은 그 메타적 형식을 통해,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의 집착적 소유권 행사를 그린다.

갓 스무 살이 된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육체적 경험인 '첫 섹스'는 가장 충격적인 일, 따라서 가장 소설화하고 싶은 일인데 "같은 경험을 남자애들은 모험담처럼 쓰고 여자애들은 임신과 낙태에 대한 공포 소설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33]고 소설의 화자는 말한다. 여성 주체에게 임신과 임

31 소영현, 「광장 이후, 연대 (불)가능성」, 『구보학보』 34호, 구보학회, 2023, 376쪽.

32 정관사 '그'에 주목하는 이지은의 해설은 이 점을 흥미롭게 설명해내고 있다. 이지은 해설, 「퀸 사이즈 소설과 그 여주들」, 박서련,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민음사, 2022.

33 박서련, 「그 소설」,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민음사, 2022, 188-189쪽. 박서

신중지가 공포 소설로만 재현되는 현상은, '낙태죄'의 존재와 고착화된 임신중지 감정 각본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제한하는 실례를 보여준다.

게다가 남자애들의 첫 섹스 모험담 소설과 여자애들의 임신·낙태 공포 소설은 합평 시간에 조금 다른 대접을 받는다. "제발 너희 임신하고 낙태하는 소설 좀 쓰지 마라."(「그 소설」, 186)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는 문창과의 분위기는 여성의 몸-경험 서사를 뻔한 것, "닳고 닳은"(「그 소설」, 187) 것으로 취급한다. 반면 첫 섹스 모험담 소설을 써 온 "남자애들은 절대 낙태 소설을 써 온 여자애들만큼 망신을 당하지"(「그 소설」, 189) 않는다. 남성의 몸-경험은 여성의 몸-경험만큼 진부한 것으로 폄하되지 않는 것이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강사가 "낙태를 다룬 소설을 보면 학생들과 눈빛 교환을 한 다음 합평 대상자를 은근한 시선으로"(「그 소설」, 187) 볼 때 여성의 몸-경험은 은밀한 혐오의 방식으로 즐겨진다.

임신중지 경험을 다루는 소설 「내 애기」의 수상 소식 공표 이후, 엄마는 '나'에게 전화해 "어떤 쌍놈의 새끼인지 당장 엄마한테 전화번호 불러 봐."(「그 소설」, 198)라며 분노하고, 문제의 '쌍놈의 새끼'로부터 온 전화는 "우리 아기잖아!"를 거쳐 "내가 다 폭로할 거야." "네 소설, 소설 아니라고. 넌 낙태 살인자 년이라고."(「그 소설」, 202)라는 말로 끝난다.[34] '폭로'할 수 있다는 전 남친의 믿음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사회적 소유권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우리 사회에서 임신중지가 갖는 의미("낙태 살인자 년")와 그 의미를 통해 '나'의 사회적 권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10년 전의 임신중지는 협박할 거리가 되는 것이다.

련의 「그 소설」은 모두 이 책에서 인용했다. 이후로는 작품명과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34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나'가 과거의 계류유산 경험을 오롯이 자기 자신만의 일로 체감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는 임신에 절반의 책임이 있는 '그 새끼'의 존재조차 잊는다. "어떤 새끼가 그랬어?"라는 엄마의 물음에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소설을 쓰는 동안에도, 소설에 쓰기 위해 오래전 일을 돌이켜 새길 동안에도 나는 그 어떤 새끼도 떠올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 엄마가 묻지 않았다면 나는 내내 나 혼자 임신했던 것처럼 살았을지도 모른다."(「그 소설」, 198)라고 생각한다. 임신과 유산을 오로지 자기 자신의 문제로만 사유하는 '나'의 태도는 임신 소식에 헤어지자는 말만 남기고 무책임하게 떠났던 과거의 남자친구에 대한 진정한 복수처럼 읽히기도 한다. 그의 존재를 잊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을 만큼 그는 무의미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 소설」에는 태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만큼이나 남자에 대한 원망도 없다.

이렇게 볼 때 '여성의 육체에 대한 여성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엉킨 소매」의 자유주의적 입장이 가진 한계가 드러난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재생산의 과정은 임신·출산·보육 등을 다루는 우리 사회의 문화 및 제도와 긴밀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여성 몸에서 일어나는 생식 현상"[35]이라고만 볼 수 없다. 개인이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일에는 임신 및 출산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담론, 실질적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결국 재생산권은 재생산 정치와 함께 문제 삼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36] 세상에 폭로하겠다는 전남친의 협박은 임신중지의 사회적 성격을 드러내는 일례로 볼 수 있다.

한편 전남친의 폭언 뒤로 이어지는 화자의 상념은 작품의 주제의식을 담지하는 것이면서 임신중지를 재현하는 한국 소설의 진전을 성취하는 대목이다.

> 10년도 넘게 지난 일인데 내가 여전히 그때 받은 수술을 24시간 주 7일 의식하며 고통받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그게 내게 협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그건 심각한 망상이다. (「그 소설」, 203-204)

여기서 소설은 "여성이 임신중지 이후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37]는 사실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명시하고 있다. 어떤 임신중지 경험은 주체의 전 생애에 걸쳐 회귀하는 죄의식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심각한 망상이다." 누군가는 십 년 전의 임신중지로 인해 십 년 내내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 소설」의 새삼스러운 주장이다. 이처럼 박서련의 「그 소설」은 기존의 임신중지 감정 각본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감각인 죄의식을 거부하고 있다. 태아에 대한 죄책감도, 태아를 염두에 두지 않는 자신에

35 성과재생산포럼, 『배틀그라운드-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후마니타스, 2018, 16쪽.

36 위의 책, 17쪽.

37 에리카 밀러는 뒤이어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 임신중지 경험에 대한 심리학 및 사회학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이 더 자주 보고된다. 임신중지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이며 일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일어나는 절차다. 다만 규범적 여성성이라는 것이 임신중지에 대한 그런 인식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에리카 밀러, 앞의 책, 11쪽.)

대한 반향된 죄책감도 여기에는 없다. 소설이 임신중지를 재현할 때 죄의식을 다루는 서사만큼이나 여성 자신의 안위에 집착하는 서사도 필요하다. 다방향의 서사가 수용될 때 임신중지 감정 각본의 경계도 재구획될 수 있으며 여성적 언어의 구축 역시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그 소설」은 유산(流産)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정 각본을 직접 뒤엎고 있기도 하다. '나'는 사실 임신중지가 아니라 계류유산을 경험했는데, 당시 느꼈던 감정을 기술하는 부분은 유산이라는 사건을 대하는 새로운 감정 각본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유산은 상실과 그로 인한 슬픔이라는 내러티브 속에서 발화되곤 한다. 그러나 소설에서 '나'는 아이를 원치 않았으며 임신중지를 가능한 선택지로 심각하게 고민한 바 있다. 따라서 계류유산 당시 화자는 슬픔이나 상실감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안도에 가까운 '감사'를 느낀다.

> 아기집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어요.
>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묻고 답을 들었을 때, 나는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고마웠다 진심으로. 그게 무섭다거나 소름 끼친다고 생각해도 좋아 그렇지만 나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울었다.(「그 소설」, 203)

원치 않은 임신이었기 때문에 유산이 안도감을 주는 사건일 수 있다는 소설의 주장은 사실 새삼스럽다. 그러나 유산을 경험한 주체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서사가 그 새로움으로 모종의 충격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익히 알고 있듯 감정이란 사회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임신중지 감정 각본을 재사유해야 한다는 에리카 밀러의 주장은 임신중지가 여성의 온전하고 배타적인 결정일 수만은 없으며, 이 선택이 이미 사회적 영향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38] 임신중지 감정 각본이

38 임신중지를 선택하게 되는 다양한 사유들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겠다. 임신중지란 '태아의 생명권' 혹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슈에 일원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일이 결코 아니며, 여성 혼자만의 폐쇄적 선택일 수도 없다. 임신중지는 여성 주체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맥락의 문제, 신체적 건강 상태, 파트너와의 관계, 미래 계획 등에 다원적으로 연관된 문제다. 임신중지 결정의 구체적 사례에 관해서는 백영경, 「성적 시민권의 부재와 사회적 고

달라진다면, 임신중지를 사유하고 발화하는 여성의 언어도 달라질 수 있다. 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임신중지를 사유하고 발화하는 여성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임신중지 감정 각본을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인간사의 면면들을 깊이 응시하는 문학은 가능한 정치로 함몰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39]이라는 주장이 무색하게 문학과 정치(현실)가 이미 서로에게 깊이 함몰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화자가 경험한 것이 임신중지가 아니라 계류유산임을 일부러 적시하는 소설의 태도는 "여자가 쓴 소설의 주인공이 여자일 때 이따금 주인공의 얼굴을 그 소설을 쓴 작가의 얼굴로 상상된다"(「그 소설」, 190-191)라는 소설 속 문장과 메타적으로 공명해 흥미롭다. 소설 속의 '나'가 쓴 「내 얘기」가 곧장 '나'의 얘기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현실의 박서련이 쓴 「그 소설」 또한 곧장 작가의 이야기로 독해될 위험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다.

5 결론

2019년 이전의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는 법적으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형법이 규정하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지만 누구나 어렵지 않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임신중지가 충분히 사유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법적 금지와 현실의 묵인 사이에서 임신중지에 관한 무(無)담론 지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임신중지 담론의 빈곤은 문학장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임신중지 서사 및 임신중지 서사에 관한 본격적 연구가 매우 협소한 실정이다. 그런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한국 문학장 안에서 새로운 임신중지 서사가 점차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이현석의 「다른 세계에서도」(2019), 하명희의 「십일월이 오면」(2021), 박서련의 「그 소설」(2021),

---

통」, 『아시아여성연구』 52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3; 한국여성민우회, 앞의 책; 다이애나 그린 포스터, 김보영 역, 『턴어웨이: 임신중지를 거부당한 여자들』, 동녘, 2021 참고.

39 양혜원, 앞의 글, 342쪽.

이서수의 「엉킨 소매」(2022)를 중심으로 최근 한국 소설의 임신중지 재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에리카 밀러에 의하면 감정 각본이란 한 사회의 '상식적인 감정'을 규정하는 일관된 내러티브인데, 우리 사회의 임신중지 감정 각본에는 슬픔·죄책감·수치심 등의 부정적 감정만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에리카 밀러가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임신중지는 안도·감사·희망 등의 긍정적 감정을 야기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임신중지 감정 각본이 가진 편협함은 임신중지와 행복을 함께 사유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일축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임신중지를 다루는 네 편의 근작과 에리카 밀러의 논의를 함께 살핌으로써 최근 우리 소설들이 보여주는 임신중지 서사의 감정 각본 다각화 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여성의 언어를 발굴해야 한다는 오래된 주장에 각자의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다.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아니 에르노는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다룬 소설 『사건』을 이렇게 끝맺는다.

> 그저 사건이 내게 닥쳤기에, 나는 그것을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목표가 있다면 아마도 이것뿐이리라. 나의 육체와 감각 그리고 사고가 글쓰기가 되는 것, 말하자면 내 존재가 완벽하게 타인의 생각과 삶에 용해되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다.[40]

아니 에르노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여성적 언어의 탄생을 겨냥한다. 구체적인 여성 존재가 "보편적인 무엇인가가 되는" 순간은 곧 여성의 언어가 상징질서 안에서 확고해지는 순간과 함께 도래할 것이다. 여성의 "육체와 감각 그리고 사고가" 상징적 언어가 되는 것, 그런 일은 보다 많은 서사와 함께 가능해질 테다. 이는 물론 수효의 많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임신중지와 관련하여 여성적 언어를 구축하는 일은 임신중지 감정 각본에 더 많은, 그리고 한층 깊은 균열을 요청

40 아니 에르노, 앞의 책, 79쪽.

한다. “임신중지와 반복적으로 엮이는 특정한 감정들이 여성에게 임신중지의 문화적 의미를 각인한다”[41]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본 논문은 감정 각본을 살피는 방식을 통해 임신중지를 재현하는 한국 소설의 자그마한 진전을 포착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언어를 부조해내는 하나의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현실 없이 문학은 존재할 수 없을 테다. 그런데 에리카 밀러의 감정 각본 논의는 문학 없이는 현실도 존재하기 어려울 것임을 깨닫게 한다. ‘감정 각본’으로 표현될 수 있는, 현실 이해를 위한 각종 내러티브들을 축조하고 파괴하고 재조립하는 것이 문학의 역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낙태에서 임신중지로, 출산율에서 출생율로 단어를 바꿔나가는 일은 여성을 재생산 노동에 종속시키고 암묵적 책임을 부과하는 가부장제의 전략에 대한 반발이다. ‘아이를 떨어뜨린다’라는 뜻의 ‘낙태’는 여성을 모성이 부재하는 잔인한 존재로 규정하고, ‘출산율’이라는 표현은 아이의 출생과 관련된 사회적 제 요건들의 무게를 은폐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최근 우리 소설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임신중지 서사는, 재생산과 관련된 단어를 바꿔내는 이러한 정치적 시도들과 맞물려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박서련, 「그 소설」,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민음사, 2022, 179-204쪽.

이서수, 「엉킨 소매」, 『젊은 근희의 행진』, 은행나무, 2023, 51-84쪽.

이현석, 「다른 세계에서도」, 『다른 세계에서도』, 자음과모음, 2021, 29-70쪽.

하명희, 「십일월이 오면」, 『여덟 편의 안부 인사』, 강, 2021, 13-38쪽.

단행본

강지희(심사평), 『2020 제 11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20, 285-

41 에리카 밀러, 앞의 책, 10쪽.

286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서발간팀 편집,『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2021.
성과재생산포럼,『배틀그라운드-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후마니타스, 2018, 5-23쪽.
이지은(해설),「다른 세계로」,『2020 제 11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20, 145-151쪽.
이현석(작가노트),「각주」,『2020 제 11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20, 141-144쪽.
한국여성민우회,『있잖아… 나, 낙태했어』, 다른, 2013.
다이애나 그린 포스터, 김보영 역,『턴어웨이: 임신중지를 거부당한 여자들』, 동녘, 2021.
사라 아메드, 성정혜·이경란 역,『행복의 약속』, 후마니타스, 2021, 361쪽.
아니 에르노, 윤석헌 역,『사건』, 민음사, 2019.
에리카 밀러, 이민경 역,『임신중지: 재생산을 둘러싼 감정의 정치사』, 아르테, 2019.

논문
김미경,「낙태 담론과 페미니즘 욕망의 문학적 형상화-아이힝어의『거울이야기』와 박완서의『그 가을의 사흘동안』을 중심으로」,『헤세연구』23권, 한국헤세학회, 2010, 185-202쪽.
박종주,「'낙태'는 죄였던 적이 없다」,『여성이론』37호, 여이연, 2017, 321-330쪽.
백영경,「성적 시민권의 부재와 사회적 고통」,『아시아여성연구』52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3, 43-71쪽.
소영현,「광장 이후, 연대 (불)가능성」,『구보학보』34호, 구보학회, 2023, 355-380쪽.
양현아,「여성의 임신종결권리의 필요성과 그 함의」,『생명윤리』7권 1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06, 15-33쪽.
_____,「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한국여성학』 26권 4호, 한국여성학회, 2010, 63-100쪽.
양혜원,「여성 경험의 서사와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 박완서와 공지영의 낙태 서사를 중심으로」,『한국학』 44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313-348쪽.
이은진,「낙태죄의 의미 구성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페미니즘 연구』 17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7, 3-46쪽.
이혜정·송다영,「임신중지권리 담론 분석 — 대항담론 형성을 중심으로」,『페미니즘 연구』 21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21, 187-231쪽.

뉴스 기사 및 판결문

김양중 기자,「'불법 낙태 처벌' 논란 점화」,『한겨레』, 2010.02.0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2697.html
헌법재판소 2012.8.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Abstract

Diversification of emotional scripts in abortion narratives
– Focusing on Korean novels after the 2019 ruling that abortion crime was unconstitutional

Park, Dasom

In Korean society before 2019, abortion was clearly prohibited by law, but was implicitly permitted in reality. This situation, where anyone can have an abortion without difficulty even though it is subject to legal punishment stipulated by criminal law, ironically has resulted in abortion not being fully considered in our society. The poverty of abortion discourse is no exception even in the field of literature, so full-scale research on abortion narratives and abortion narratives is limited.

However,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bortion law was unconstitutional in 2019, new abortion narratives began to be gradually discovered within the Korean literature. Accordingly,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representation of abortion in recent Korean novels, focusing on works published after the 2019 ruling that abortion was unconstitutional. The target works are Lee Hyun-seok's "*Even in other*

worlds"(2019), Ha Myeong-hui's "*When November comes*"(2021), Park Seo-ryun's "*The novel*"(2021), and Lee Seo-su's "*Tangled Sleeves*"(2022).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pay attention to the cracks that recent narratives inscribe in the 'abortion emotional script.' An emotional script is a consistent narrative that defines the 'common sense emotions' of a society, and only negative emotions such as sadness, guilt, and shame have been allowed in our society's abortion emotional script. However, as Erica Millar emphasizes, some abortions can lead to positive emotions such as relief, gratitude, and hope. The narrow-mindedness of our society's abortion emotional script must be re-considered in that there is a risk of dismissing the voice of someone who thinks about abortion and happiness together as unethical. This paper seeks to confirm attempts to diversify the emotional script of abortion narratives shown in recent Korean novels by examining four recent works dealing with abortion and Erica Millar's discussion.

Key words: abortion, Erica Millar, emotional script, Lee Hyun-seok, *Even in other worlds*, Ha Myeong-hui, *When November comes*, Park Seo-ryun, *The novel*, Lee Seo-su, *Tangled sleeves*

논문제출 / 2024.03.14.
논문접수 / 2024.03.16.
게재확정 / 2024.04.04.